

한시 한 수 시귀 詩鬼 이하李賀의 소소소묘 蘇小小墓

마침내 그녀가 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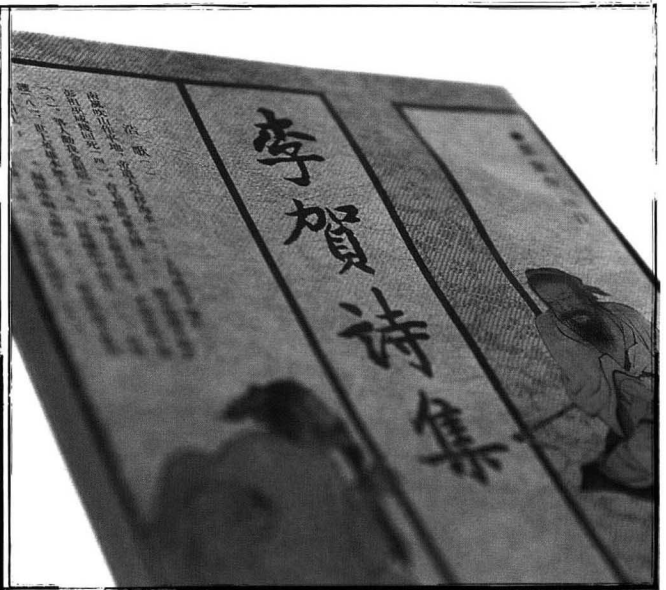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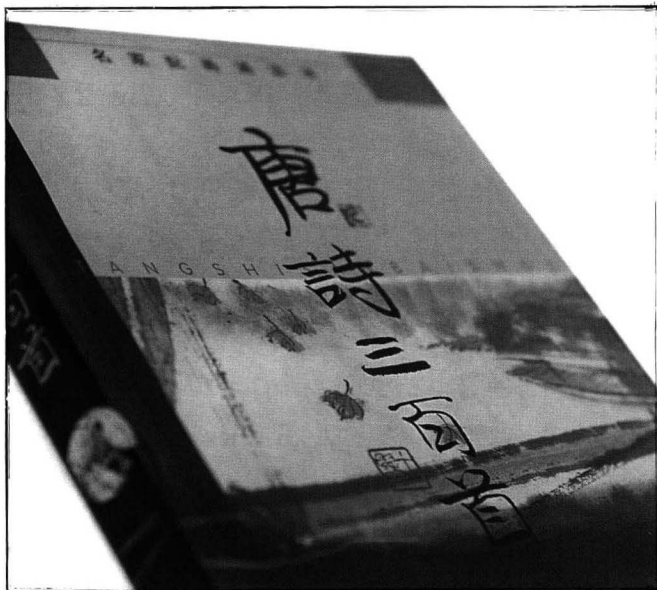
기태완

근대 이전까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에는 한시(漢詩)가 있었다. 한시는 중국인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모든 동아시아 국가 지식인들의 교양필수였다. 한시는 음악과 회화, 서예 등과 결합하여 독특한 동아시아 문화의 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의 창과 판소리, 심지어는 가장 기층문화라 할 수 있는 탈춤놀이에서까지 자주 한시를 마주치게 된다. 그러므로 한시를 모르고는 우리의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감상과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시경》과 《초사》로부터 발원된 한시는 당나라에서 그 정점에 올랐다. 그래서 당시(唐詩)는 후대 한시의 전범이 되었다. 그 당시 가운데 한수를 감상해 보기로 한다.

幽蘭露, 유란입에 맺힌 이슬은
 如啼眼, 울고 있는 그대 눈동자
 無物結同心, 우리 사랑을 맺어 줄 짐표도 없는데
 煙花不堪剪, 안개의 꽃은 잘라낼 수가 없네
 草如茵, 풀밭은 자리 같고
 松如蓋, 소나무는 양산 같아
 風爲裳, 바람을 치마로 걸쳤고
 水爲佩, 샘물 소리를 패옥 소리로 삼았네
 油壁車, 그대의 유벽거를
 夕相待, 석양에 기다리는데
 冷翠燭, 차갑고 파란 귀시들만이
 勞光彩, 노고롭게 광채를 발할 뿐
 西陵下, 서릉 아래엔
 風吹雨, 바람이 비를 몰아가고 있네

(이하 李賀의 〈소소소묘 蘇小小墓〉)



기래완 _____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한국한문학 전공). 문학박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 조전임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 저서에 《黃梅泉詩 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

중당의 시인 이하(李賀: 790-816)의 〈소소소묘蘇小小墓〉란 악부시樂府詩이다. 악부시는 고시의 일종으로, 옛 제목과 테마를 취하여 지은 장단구의 시를 말한다. 소소소蘇小小는 육조시대 남제南齊 때 전당錢塘의 명기名妓였다. 고악부古樂府 〈소소소기蘇小小歌〉란 노래가 전해 오는데 다음과 같다.

妾乘油壁車
 乘은 유벽거를 타겠어요
 郎騎青驄馬
 郎은 개서는 청충마를 타세요
 何處結同心
 어디에서 우리의 사랑을 맺을까요?
 西陵松柏下
 서릉의 소나무 측백나무 아래지요

이하의 시는 바로 이 노래에 기초하고 있다. 서릉西陵은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항주杭州에 있는데, 그녀의 무덤이 그곳에 남아 있다. 지금도 비바람이 치는 저녁이면 그녀의 무덤에선 애절한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전한다.

본시를 보자. 시인은 대략 250여 년 전의 명기 소소소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웬지 으스스하다. 유란은 난의 일종. 무덤 가 그 유란의 앞에 맺혀 있는 이슬은 울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만 같다. 지금 그녀와 사랑을 맹세할 그 어떤 정표도 없는데, 그녀의 무덤 가에 서려 있는 물안개의 꽃은 잘라낼 수가 없어서 사랑의 정표로 삼을 수도 없다. 무덤 가의 풀밭은 그 옛날 그녀가 노래하던 무대에 깔아 놓은 자리와 같고, 커다란 소나무는 그 무대에 펼쳐졌던 양산과 같다. 어디선가 문득 사락사락 치맛자락이 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 그녀가 오는가?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고 있을 뿐, 치맛자락 소리는 시인의 환청이었던 것이다. 아! 당신은 바람을 치마로 걸쳤군요. 그런데 또 어디선가 딸랑대는 맑은 패옥 소리가 들려온다. 패옥은 고대의 여성들이 허리띠에 몇 개의 옥을 매달아 걸어갈 때 맑은 소리가 울리도록 한 장식품. 아! 마침내 그녀가 오는가? 그러나 사방 아무 데도 그녀의 모습은 없다. 역시 시인의 환청이었다. 다만 무덤 근처에 샘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아! 당신은 샘물 소리를 패옥 소리로 삼았군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당신의 유벽거는 왜 아직 오지 않는가? 나는 청충마를 타고, 당신은 유벽거를 타고 이 서릉 아래에서 만나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유벽거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도장한 고급수레. 아무튼 그녀의 유벽거는 영영 오지 않고 그녀의 무덤에선 차갑고 파란 귀신불만 깜빡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서릉 아래엔 비바람만 몰아치고 있다.

이하는 자가 장길長吉인데, 27살에 요절한 천재시인이다. 그는 지상의 시인이 아닌 귀계鬼界의 시인이었다. 사람들은 이 백을 시선詩仙, 이하를 시귀詩鬼라고 부른다. 그가 '귀신', '무덤', '죽음', '혼백', '도깨비' 등을 소재로 삼아 많은 환상곡을 창작하였기 때문이다. 표현에 있어서도 감각적인 시각과 청각이미지를 구사하여 독특한 개성을 확보하였다. 그래서 후대의 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몰락한 황족 출신으로 평생 불우하게 살았는데, 그의 요절은 옥황상제가 백옥루白玉樓를 지어 놓고, 그 기문記文을 짓기 위해 이하를 데려갔기 때문이라고 전설은 전하고 있다. **출판**